

## 新年隨想



# 人生은 이렇게 삼시다

## 不老長壽의 方法

李 承 徽

疾病은 早期診斷 早期治療가 最善의 方法이다.

### 壽命

老衰가 오는 年齡은 사람에 따라서 各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50代에 폭삭 늙고 어떤 이는 80代가 되어도 壯年과 같이 元氣旺盛한 사람도 있다.

또한 죽는(死亡하는) 年齡도 사람에 따라서 相違한 것이다. 幼年

나 青年이 病에 걸려서 죽는 것은 別問題로 하더라도 心臟이나 腦, 腎臟 등의 器官이 그 作用을 하지 못하여 죽는 사람은 40代에서부터 여러 年齡層에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어떤 器官이 早期老衰를 일으키며 젊어서도 빨리 죽게 되는 것이다. 例를 들어 生殖器의 機能이 너무 旺盛하여 精力을 過하게 使用하면 腦出血, 心臟麻痺 等

을 일으켜 死亡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腹上死하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乘馬死라 한다. 卽 모든 器官이 步調를 取하면서 強弱을 維持하여야지 그 하-모니를 維持치 못하게 되면 빨리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人生은 몇살까지 살면 天壽를 다 했다 할 것인가? 이에 對하여는 學者에 따라서 여러 가지 異說이 있으나 總說로서 人間은 約 100 ~ 200 歲까지는 살수 있다는 것이다.

로마의 雄壽家 세네가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自殺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듯이 大多數의 人間은 無理(過飲, 過食, 過色)를 하여서 죽어가는 것이지 天壽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 不老長壽 研究의 金석(今昔)

人間文化的 發祥地인 希臘인들은 미이라를 만들어 屍體의 長期保管에 努力하였다. 希臘(그리스)의 王은 妃女의 血液을 王의 體内に 輸血하다가 그만 死亡하였다.

秦始王은 三神山 不老草를 求하여 그 몸의 젊음을 長期間 간직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失敗에 그친 것이다.

이탈리아의 微生物學者 메치니코푸는 腸內細菌의 腐敗에 依하여 自家中毒을 이르게 老衰가 온다고 하여 이를 防止하기 爲하여 乳酸菌을 醱酵시켜 그 液을 內服하여 老衰防止 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 메치니코푸는 71歲를 一期로 死亡하였다. 이는 어릴 때부터 病弱者이면서 辰甲을 지내기까지 살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愛用되고 市販되고 있는 요쿠르트(요구르트)의 德分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現在도 形態를 바꾸어 整腸劑로 世界各國에서 研究 愛用되고 있다. 日本의 西遠寺公은 長壽法의 하나로 就寢時 80의 高齡인 데도 妃女를 兩쪽에 끼고 잤다는 이야기도 있다.

19世紀 後半에 불란서의 부리온 세칼은 老衰의 原因은 內分泌가 적어진다고 하여 몰못트 1개의 鞣丸의 에 키스를 만들어 當時 73 歲이었던 自身에게 注射하여 効力を 얻었다는 記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年頃에 腦下垂體 移植術이 한참 流行되었던 時節이 있다. 筆者도 醫師의 立場에서 醫師를 나무라는 것은 안되었지만 良心的인 醫師치고 腦下垂體 施術을 한 醫師는 없음을 附記하여 둔다. 몰개(몰개)의 鞣丸이 진짜가 짜하면서 高價에 팔리는 것을 본다. 甚히 寒心한 노릇이다.

진짜면 어찌자는 것이고 -가짜라면 어찌자는 것인지 -

蘇聯의 長壽法으로서 보고모래 쯔의 ACS (Anticytotoxic Serum)가 있었다. 스탈-린이 愛用

(11면으로 계속)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 둘 이루어지리라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집엔 연말 연시가 특별히 없다. 어느 해가 무슨 동물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 사실은 아무도 그 해의 상징동물에 자신의 운명을 투영하여 내일(來日)을 기다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삭막하기도 하다. 그저 돼지가, 토끼가, 호랑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이다.

내가 돼지같은 돼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듯 그들도 힘

겹기만 할 것이다. 지금으로써 기대되는 희망이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할 뿐이다. 돼지가 되어, 토끼가 되어, 호랑이가 되어 세상을 돼지같이 또는 토끼같이, 호랑이같이 보아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물같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같은 동물이, 말하자면 사람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기다림의 끝이라고 믿고 도서관 같은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이 다행할 뿐이란 것이다.

제발 망령되지 간사스런 「동물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일까?

〈필자=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장·의박〉

---

## 早期발견만이 당신을

## 癌으로부터 구해 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

〈7 면에서 계속〉

하였으나 스탈린도 70歲를 一期로 죽어갔다. 京城帝大 内科 岩井教授는 脾臟 에키스劑 注射로 結核을 治療해 보려고 企圖하여 보았으나 큰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結論的으로

不老長壽의 最善의 方法은 우리 健康管理協會가 目標하는 成人病의 早期發見, 早期治療가 最善의 方法임을 強調하는 바이다.

〈필자=健協인천직할시지부장·의박〉